

소상공인 생태계 강화

중기부,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등 사회안전망 넓힌다

2027년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발표
소상공인 200만명 건강검진 지원
육아수당 도입... 3개월간 150만원

정부가내년에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해 창업 5년 미만 청년 약 4만8000
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일시 휴
업할 경우 대체인건비를 준다.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육아를 돕기 위해 육아지원
수당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 간담회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책은 크게 ▲청년

의 창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폐업이
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3대 축으로 준비했다.

창업안심 정책보험의 경우 결혼, 출
산,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 휴업시 사무
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에 쓸
수 있도록 최대 3개월간 하루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또는 재도전을
통한 창업시엔 별도 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건강검진은 200만명을 대상
으로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육아지원 수당은 1인 자영
업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안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

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
험료(최대 80%, 5년)를 내년에 약 5만
5000명에게 지원한다. 다만 계획안은 국
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바뀔 수 있다.

이병권 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
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
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들려준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
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
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
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
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소진공, 첫 명예이사 위촉... 정책-현장 연결

홍석천·류은혜·김은희 등 6명
기관경영·정책에 현장의견 반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명예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방송인 홍석천씨 등 6
명을 위촉했다.

소진공은 지난 1일 서울 마포 드림
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를 정책과 기관 경영에 폭넓게 반영하
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
기 위해 첫 명예이사를 위촉했다고 2
일 밝혔다.

명예이사 제도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

권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명예이사로 위촉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경영과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진공은 위촉식에서 자영업 전문가
이자 이태원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온 방송인 홍석천을 비롯해 류은혜 프
랑스 정부 공인 문화 해설사, 김현성 국
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김은
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이사,
양준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
동대표,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교육본부장을 명예이사로 위

촉했다.

명예이사들은 앞으로 소상공인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계
획이다. 또 홍보·정책·대외협력·지역 상
권 등 소상공인 분야 전반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진공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에
힘을 보탬 수 있는 각계 전문가를 명예
이사로 지속 위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혁신과 정책 성과를 창출해 나
갈 계획이다.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은 "명예이사들



(왼쪽부터)방송인 홍석천,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김은희 이사,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신규철 교육본부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김현성 자문위원이 지난 1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진행한 소진공 명예이사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듣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소
상공인 정책에 연결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가치를 함께 발굴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美 엘우드 물류센터 본격 운영

韓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거점 육성

CJ대한통운이 한국해양진흥공사(KO
BC)와 함께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 물류
센터 운영을 본격 시작하며 북미 물류 사
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동부 시카고에 이어 중서부 엘우
드까지 전략 거점을 확충하면서 한국
기업의 북미 공급망을 지원하는 핵심
물류기업으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해양진흥공사와 추진한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Elwood) 물류센
터 구축을 끝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고 2일 밝혔다.

미국 중서부 물류 중심지인 시카고 인
근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약 10만2775
㎡(3만1089평)로 축구장 약 14개에 달하
는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는 대규모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 향후 고객과 물동량 증가에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인프라도 갖췄다.
대형 화물차가 동시에 물품을 입출고할
수 있는 130개의 도크를 확보해 입출고 집
중 시간대에도 대량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2m의 높은 유효충고를 활용해
수직 적재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엘우드센터를 배터리를
비롯한 한국 첨단산업의 북미 공급망을
지원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
다. 엘우드센터는 대규모 보관공간과 미
국 전역을 연결하는 운송망, FTZ를 활용
한 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원자
재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산업 물류 수요
에 대응하고 관련 고객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나단 송CJ대한통운 글로벌사업부문
대표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에 확보한 핵
심 물류거점을 기반으로 북미 사업 경쟁
력을 한층 강화하고 배터리 등 첨단산업
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군의 글로벌 성장
을 지원하는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기술거래플랫폼' 1023억 예산 확보

AI 기반 검색 매칭·기능 강화

기술보증기금이 내년에 기술거래플
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더욱 고도
화하고 기업들의 기술사업과 지원을 강
화한다.

기보는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정과제
인 '기술거래플랫폼 연계·고도화'를 위한
예산 88억원과 '기술사업과 전용 보증'
93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023억원의 기술
거래·사업화 활성화 예산이 반영됐다고 2
일 밝혔다.

기보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재
원을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
유한 스마트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부처

별 기술거래플랫폼 간 연계·고도화에 속
도를 낸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 과정
에서 자금 부족과 시장진입 부담으로 발
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사
업화 전용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
해 기술 탐색·매칭부터 계약, 사업화자금
지원까지 이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
신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
이다.

이번 스마트테크브릿지 연계·고도화는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플랫폼을 연결
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검색·매칭 기능
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가온전선, AI DC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저마찰 케이블 등 제품군 확대

가온전선이 저마찰 케이블을 앞세워 인
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가온전선은 배전용 저마찰 케이블의
적용 범위를 기존 반도체 공장에서 AI
데이터센터(AIDC)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저마찰 케이블은 외피 소재를 개선해 설

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기존 제품보
다 약 30% 줄인 제품이다.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45% 늘려 작업 인력
과 공사비를 20~30% 절감할 수 있다.

AIDC는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버스덕트를 주로 사용하지만 설계와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에는 배전 케이블
도 함께 설치한다. 저마찰 케이블은 버스
덕트만으로 전력망을 구성하기 어려운 구
간에 적용된다.

가온전선은 저마찰 케이블까지 제품군
에 추가해 데이터센터 내부 배전부터 외
부 전력망 연결까지 AIDC 내·외부를 아
우르는 전력 인프라 공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AI 데이터센터
를 비롯해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 등 대규
모 산업시설에서 시공 효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배관일체형(ACF) 케이
블과 저마찰 케이블, 케이블버스 등 차별
화된 특수 배전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시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리뉴얼 1주년 기념 행사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이 자동차 동호
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현대차는 오는 5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리뉴얼 1주년 기념 행사 '현대
모터스튜디오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한
다고 2일 밝혔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지난해 리뉴
얼을 거쳐 차량 전시 중심의 공간에서 다
양한 자동차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리뉴얼
이후 1년 동안 11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클래식카와 심레이싱, 다이캐스트, 미니
카, 프라모델 등을 주제로 20회가 넘는 커
뮤니티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1년간 현대 모터스
튜디오 서울과 협업한 7개 동호회가 참여
한다. 각 동호회의 특성에 맞춰 건물 외부
와 1층부터 옥상까지 공간을 꾸미고 회원
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